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1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유가에 사모신용 불안까지..다우지수 연중 최저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다우 -1.56%, 나스닥-1.78%
- 이란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국제유가 급등
- 사모 대출 펀드 자금 이탈 이어져 관련 금융주 낙폭 확대

Summary

3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 위협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사모신용 시장의 불안이 겹쳐 1%대 하락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56% 하락한 46,677.85에 마감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S&P500이 1.52% 하락한 6,672.62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8% 하락한 22,311.98에 마감했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2.12% 하락해 주요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선출 이후 첫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적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밝힘. 또한 중동 일대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바로 폐쇄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이란의 보다 강경해진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유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켜 유가 상승에 힘을 실음. 이 날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달 말쯤에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우려와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대한 전망으로 미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다음 회의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함.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 면제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를 완화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한편 월가 사모 대출 펀드에서 투자자 자금 이탈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음. 이번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클리프워터가 주력 사모 대출 펀드의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한 가운데 환매 한도를 7%로 제한했고 모건스탠리 역시 자사 사모 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한도를 펀드 지분의 5%로 제한하며 투자자 환매 요청의 절반 규모만 수용했음. 사모 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잇따르고 있음. JP모건체이스는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펀드의 담보 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해 투자자 우려를 증폭시킴. 도이치뱅크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사모 신용 시장 익스포저가 약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다우 -1.56%, 나스닥 -1.78%, S&P500 -1.52%, 러셀2000 -2.12%)

특징종목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과 사모 신용 관련 불안 속 은행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부각된 하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 넘게 하락해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기도 했음. 다만 유가 급등과 맞물려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 엔비디아(-1.5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19%), 인텔(-5.69%), AMD(-3.46%), foa 리서치(-4.29%) 등 반도체주가 대체로 큰 폭 하락.

빅테크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 케타 플랫폼스(-2.55%)와 테슬라(-3.14%) 낙폭이 특히 컸음. 어도비(-1.43%)는 마감 이후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현재 분기 가이던스를 공개했지만 18년간 회사를 끌어온 CEO 샨타누 나라옌의 사임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

최근 사모 대출 펀드에서의 투자자 자금 이탈과 운용사의 환매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일 환매 제한 조치를 알린 모건스탠리(-4.05%)가 금융주 하락을 주도. 골드만삭스(-4.40%), 씨티그룹(-3.38%), 뱅크오브아메리카(-2.87%). 환매 제한 조치를 앞서 실시했던 블루 아울 캐피털(-4.55%), 블랙록(-2.97%)을 비롯해 KKR&CO(-3.73%),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5.47%), 아레스 매니지먼즈(-6.73%) 등도 크게 하락. 이 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사모 신용 시장 익스포저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도이치뱅크(-6.63%)도 낙폭 컸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뿐 아니라 각종 정제 제품군에 대한 가격 상승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에너지주와 화학, 비료주는 강세. 엑슨 모빌(+1.29%), 셰브론(+2.70%), 코노코필립스(+2.76%). 옥시덴털 페트롤리엄(+5.09%)이 특히 크게 올랐는데 주가는 이 날 상승으로 2024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웰스파고와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의견과 목표가 대폭 상향 소식이 있었음. 한편 전세계 비료 공급량의 최대 3분의 1이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화학, 비료 업체 주가도 끌어올림. 질소 비료 시장을 장악 중인 CF 인더스트리스(+13.21%), 대표 화학 기업 다우(+9.34%), 인산염과 포타슈 비료가 주력인 모자이크(+7.58%).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재점화되자 인플레 심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등에 대한 전망이 맞물려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 2년물 금리가 8.8bp 상승한 3.740%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1bp 상승한 4.260%를 기록. 단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 차는 5.67bp 축소됨.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재현돼 달러인덱스(DXY)가 99.73을 기록했으며 달러/엔 환율은 달러 강세-엔 약세를 반영해 159엔대 위에 머무름. 상품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10% 내외 급등세를 시현한 가운데 브렌트유는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마감했고, WTI는 배럴당 95달러를 상회. 달러 강세를 반영해 금과 은, 구리 등 금속 가격은 소폭 하락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